

「士小節」에 나타난 兒童訓育法 考察

A Study on the method of child instruction in 「Sa So Jeol(士小節)」

嶺南大學校 家政大學 家庭管理學科
副教授 柳 點 淑

Dept. of Household Administration, Youngnam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Jeom Sook Lew

<目 次>	
I. 序 言	3. 敬長(어른을 공경함)
II. 本 論	4. 事物(이런 일 저런 일)
1. 動止(행 동거지)	III. 要約 및 結言
2. 教習(가르쳐 익힘)	參考文獻

<Abstract>

The book of Sa So Jeol(士小節) is about the moral training family precepts written by Yi Deok-mu(李德懋, 1739~1793) in the year of king Young Jo 51th in the Yi dynasty(英祖). The writer provides us, according to the views of Confucianists, with the principles that both elders and children of that time should abide by in the daily life, dividing the said books into 924 sections, 8 chapters, and 2 volumes.

The parts concerned with children are studied in this essay. The brief conclusions are as follows.

1. Children were required to have the mental attitudes of honesty, patience, tolerance and frugality and were instructed to show such attitudes through their behavior.
2. Children were instructed to have the behavioral attitudes of nine aspects(九容), which are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sages. They were instructed to emulate the personal characters of the sages through being possessed of these nine aspects, which are to be found in healthy and comfortable mental states.
3. Children were instructed to be careful and composed. in their activities. Since prudence is the basic principle of mental and behavioral attitudes, being required of men and women of all ages in a traditional society, it was emphasized from early childhood
4. The aim of instruction was taken to be becoming human, or becoming a virtuous man, rather than merely passing the classical government examamination, and for this aim the moral rules(明倫), which can be considered the order of human relations, were taught intensively.
5. As for instructional methods, the children were required to do careful or rough readings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were instructed to listen to lectures politely, prudently, ardently and honestly.

6. The instructional contents are for the purpose of making children read the classical canons after increasing their perceptive ability in the various things of the sexagenary cycle(六甲), the multiplicative method(九九法), the kings, lineage(世系), and the reign-titles(國號), and the accumulated knowledge of 「Kyug Mcng Yo Kyul (擊蒙要訣)」, 「Seong Hak Jeop Yo(聖學輯要)」 and 「Keun Sa Lok(近思錄)」. Because of the greater emphasis on natural talents rather than on acquired abilities, the children, however, were educated only after their dispositions were examined.

7. The children were required to have warm-hearted, careful, polite, and prudent attitudes toward their elders, and were instructed to take precautions against arrogance and impoliteness. Since politeness in particular was considered not only as the ground of decorum(禮) but the method of emotional regulation and maintaining composure for confucianists, it can be regarded as the principal etiquette demanded in all activities.

8. The main instructional contents are generally moral aspects, concentrating on introspection and virtuous conduct through emotional regulations, rather than on the natural expression of physical and mental states.

I. 序 言

「士小節」은 英祖 51年(1775)에 저술된 韓國 傳統社會의 家訓格인 修身書이다. 著者 李德懋는 북학파에 속한 實學者로 호는 雅亭이며 通德郎을 지낸 聖浩의 아들이다.

李德懋는 嫡庶의 차별이 심한 當時에 서출로 태어났기 때문에 벼슬은 積城縣監에 그쳤다. 그러나 학업에 힘써 經史子集으로부터 奇文異書에 이르기까지 두루 통달하였다. 정조 17년(1793) 5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士小節」 외에도 「靑莊館全書」·「紀年兒覽」·「蜻蛉國志」·「菴葉記」 등을 저술하여 朴齊家·柳得恭·徐理修와 함께 漢文學 四家 또는 四檢書로 인정받았다.¹⁾

「士小節」은 儒家的 家訓이다. 修己治人을 目的으로 하는 儒家思想은 이를 위한 內的·精神的 바탕을 仁義에 두고, 外的 發現 혹은 그 發現을 促求하는 方便을 禮·樂으로 삼는다.²⁾ 따라서 禮는 儒敎社會를 유지시킨 ideology였으며³⁾ 儒家敎育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儒家에서 禮節은 이렇게 중요한 意義를 지니고 있지만, 그 禮를 행한다 함은 특별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灑掃應對 등 일상생활의 凡百事를 儒家的 立場에서 합리화하는데 기본을 두므로 著者도 역시 일상의 사소한 예절을 잘 실천하여 마침내 큰 행실에 이르러서도 禮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데 저술의 목적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士小節」은 8권 2책 924장이다. 제 1권에서 제 5권까지는 남자의 禮節 580장이고, 제 6권과 제 7권은 부녀자의 예절 205장이며, 제 8권 131장은 어린이(男兒)의 規範인데, 이 부분이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다.

本書는 聖賢의 言·行·古事가 간혹 인용되기도 하였지만 실생활의 지침에 대한 저자의 創意的인 생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비록 雅亭 자신은 이 책이 감히 세상에 모범이 되거나 남의 생활을 규제하려고 저술한 것이 아니라, 다만 스스로 자기 가정에서 지켜나갈 법칙을 삼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謙辭하였지만 本書는 널리 보급되어 當時의 社會를 純化시키는데 이바지하였고, 오늘날에도 전통사회의 참모습을 짐작케 하는 귀중한

考察.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3호, 1984, p. 169.

- 1) 李德懋 著 金鍾權譯, 士小節, 서울: 明文堂, 1985, p. 13~18.
- 2) 李完栽, 「禮樂論」, 東洋文化 第二十三輯 3號, 大邱: 嶺南大學校出版部, 1983, pp. 37~52.
- 3) 拙稿, 「禮記」를 통해서 본 周代의 兒童敎育觀

한 자료로 이용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童規 부분은 「小學」·「擊蒙要訣」·「海東續小學」등과 더불어 兒童의 教養教材⁴⁾(內容教材)⁵⁾로 많이 읽혀져서⁶⁾ 전통사회의 家庭訓育에 큰 몫을 담당하였고, 나아가 當時 社會의 價値觀 定立에도 이바지하였으리라 짐작된다.

本書의 內容이 200여년 전의 사실이므로 오늘날과 차이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時代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家庭生活 및 社會生活를 영위해가는 人間에게는 무언가 根源의이며 凡時代의인 要素가 존재한다고 보면 本書는 現今에도 우리들에게 격조높은 兒童訓育의 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士小節」 외에도 이 분야의 書籍은 많이 있다.⁷⁾ 그러나, 本書가 量的으로 방대할 뿐 아니라 특히 童規 부분은 兒童에 대한 내용만을 별도로 상세하게 언급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마음가짐·행동·공부·어른공경 등 짜임새 있었던 전통사회의 아동훈육법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現今에도 이러한 訓育法이 다소나마 응용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士小節」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本稿를 엮어보는 바이다.

II. 本 論

本書에서 著者는 어린이의 규범인 童規의 집필 목적을 “타고난 성품에 간악함이 없고, 아버지로 부터 받은 몸애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표준이 있어야 하며, 또 이러한 표준은 어려서 일상생활을 통하여 익히지 않으면 자라서는 더욱 잘못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天稟과 타고난 신체틀 보존하기 위하여

어린이는 훈육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訓育은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옛부터 東洋圈에서는 상식이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교재도 일찌기 개발되었으니, 「大戴禮記」·「顏氏家訓」·「袁氏世範」·「小學」과 「胎教新記」·「戒女書」·「擊蒙要訣」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서적에는 그 필요성을 설명하였거나 방법을 간략하게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를 雅亭이 本書에서 실생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밝힌 바는 諸書와 구별되는 점인 동시에 또 높이 평가되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儒家教育의 本願이 어디까지나 日用凡百事에 「下學而上達」하는 것⁸⁾이기 때문에 「童規」에서도 역시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勸止 39장, 教習 38장, 敬長 23장, 事物 31장 등 4部分으로 大別하여 下學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勸止(행동거지)

〈勸止〉에서는 행동거지에 대해 갖추어야 할 이상형을 먼저 추상적, 대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38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勸止〉에 나타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행동의 姿態 즉 容貌이다. 용모의 이상형은 九容을 갖추는 것이다. 九容(과거 聖賢의 행동적 특성)이란 九思(과거 성현의 인격적 특성)와 더불어 조선시대 童蒙教育의 기본 에티켓이라 할 수 있다⁹⁾. 즉 足容重(걸음걸이는 신중하고 경망스럽지 말아야 한다), 手容恭(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일이 없으면 단정하게 모으고 마구 움직이지 않는다), 目容端(눈은 단정히 하고 흘려 보거나 간사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口容止(말을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입을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

4) 金世漢, “朝鮮朝 初學教材 研究”, 漢文學研究第一輯, 啓明漢文學研究會, 1982, pp. 23~41.

5) 朴文鉉, 朴在馨의 「海東續小學」研究, 碩士學位論文, 1979, p. 9.

6) 韓基彥, 東洋思想과 教育, 서울: 法文社, 1978, p. 78.

7) 朴京子, “韓國近代家政教育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 학논문집 6(12), p. 216.

8) 丁淳睦, “退溪教學方法論의 哲學”, 人文研究第七輯第四號,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5, p. 901~912.

9) 任態彬, 性理學의 適應心理學의 接近, 서울대 학교 博士學位論文, 1983, p. 57.

聲容靜(形氣를 조심해서 고요히 하고 재채기나 기침 등의 잡소리를 내지 않는다.), 頭容直(머리를 똑바로 하고 몸을 꼿꼿이 하며 한쪽으로 기울게 하지 않는다.), 氣容肅(숨쉬는 것을 고르게 조화시키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立容德(똑바로 서서 덕이 있는 기상이어야 하며 몸을 기우적하게 하지 않는다), 色容莊(얼굴 모습은 정제하여 태만한 기색이 있으면 안된다.)을 말한다.

九容은 다만 신체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습 즉 적정수준의 신체적인 緊張을 유지시킴으로써 잡념을 막고 心志를 바로 잡아 성현의 길로 인도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오늘날 Paul이 제시한 不安時의 行動特性群과 대조되는 安定時의 행동특성군이고, 건강한 심리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모습으로도 판명되었다. 그래서 本書에서도 “수양이 모자라는 사람은 걸음걸이를 거칠게 하고, 말을 군색하게 하며, 헛기침을 하고 건성 웃으며, 머리를 기웃거리고 손을 내두르고 하는데, 이는 좋은 기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九容의 아홉가지 몸가짐을 어릴 때부터 잘 익히고 행하여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행동거지를 조심하여 신중하고 침착하게 하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손님의 물건으로 장난하지 말며, 노여움을 잘 타는 거지, 불구자에게 말조심을 하여 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이다. 또 칼·도끼·망치·끌 등 위험한 연장을 멀리하고, 밤길을 다닐 때는 뒤꿈치를 끌면서 걸어 부딪치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라는 내용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미치는 행위는 물론 자신의 행동 및 신체적 위험도 피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조심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유교의 원전인 「禮記」의 “빈 그릇을 잡는데도 가득찬 그릇을 잡는 것처럼 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들어가는데도 사람이 있을 때처럼 하라¹⁰⁾”는 가르침과 「小學」에 인용된 「丹書」의 “조심하는 마음이 게으른 마음을 이기는 자는 길하고, 게으른 마음이 조심하는 마음을 이기는 자는 멸망하며……¹¹⁾”, 라는 기록과 같이 儒者의 행

동에서 갖추어야 할 필연적인 요소이었다.

本書에는 놀이에 대한 章도 다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상 이를 권장하는 것은 없고 모두가 금지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면 “군사와 아전이 큰 소리로 부르거나 허리를 굽히고 나아가 절하는 예절을 피롱삼아 익혀서는 안되며, 범패(부처를 찬미하는 노래), 타령·부름소리·나공(옛날 노래 곡조의 하나)·잡소리 같은 것도 역시 익혀서는 안된다.”고 하였고……장난감이나 종이 꾸러미를 당시임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이나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더구나 놀이감이나 놀이 방법에 대한 진전한 제시가 전연없을 뿐 아니라 뛰어다니고 땅을 구르는 것 같은 지극히 어린이나운 운동조차도 예절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柳岸津에 의하면 전통사회에서도 乳兒期에는 신체기능 발달을 촉진시켜 주는 동작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고, 兒童期에 접어들어서는 性役割과 人間關係 기술을 익히며 學習動機도 유발시킬 수 있는 놀이가 행해졌다고¹²⁾ 하나, 本書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놀이를 규제하는 바를 앞의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놀이 동작은 모두 九容에 어긋날 뿐 아니라 男性에게는 특히 寡黙을 선호하도록 하는 문화적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면은 과거 中國의 兒童教育이 禮·樂·射·御·書·數 등을 室內外에서 병행된 데 비하여, 우리 傳統社會에서는 理論的인 內容들을 室內에서 教育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³⁾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정직·인내·관용·검소 같은 諸德이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훈육했다. 이러한 덕목은 오늘날의 가훈에서도 역시 대중을 이루는 것으로^{14), 15)}, 생활예절 및 인간교육의 범시대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아침하는 버릇·속이는 버릇·간

12) 柳岸津, 韓國의 傳統育兒方式, 서울大學校出版部, 1986, p. 227, pp. 316~324.

13) 拙稿, 前揭論文, p. 169.

14) 孫仁錄, “집안의 家訓과 學校의 校訓,” 새교육 11月號, 1978, p. 10~13.

15) 徐久慶, 家訓을 통한 韓國 倫理觀察,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p. 57~64.

10) 權五惇譯, 禮記, 서울: 弘新文化社, 1982, p. 353. (執虛如執盈 乙虛如有人 禮記: 小義)

11) 金星元譯, 小學, 서울: 明文堂, 1986, p. 227.

사한 버릇을 바로잡아 小人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주의시켰으며, “음식 服藥 등을 사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함으로써 인내심을 기르고 “뜻에 맞지 않더라도 婢僕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너그러운 마음을 익히며, “깨끗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童蒙의 버릇을 익게하여” 겸소하도록 하는 訓育을 당부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에게 흔히 있는 “말을 급하게 하고 걸음을 빨리”하는 습관은 기어이 바로 잡도록 고쳐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면은 정서의 안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聖學輯要」의 “마음을 定한 사람은 그 말이 편안하고 조용하며, 定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가볍고 빠르다.”라는 내용과 같다.¹⁶⁾

위생면에서는 “관 음식을 삼가하고 때때로 이를 닦아 충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한편 “소년은 제집종과 함께 놀거나 장난하지 못하게 하고, 소녀는 중문 밖의 출입을 막아 방탕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록 어리더라도 부모상을 당해서는 상례를 지키도록 타이르고, 낮은 계층과 어울려 용렬하고 비루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일상생활의 조그마한 규범까지도 잘 지키게 함으로써 전통사회가 요구하는 선비의 體貌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한편, 幼兒期の 可塑性을 인정하였으므로 나쁜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2. 敎習(가르쳐 익힘)

「小學」에 의하면 전통사회의 상류층 남성의 생활주기를 5단계로 나누고 있다. 童蒙期는 그중 胎敎 단계를 지난 두 번째 단계로 敎 또는 受敎(Instruction)로 표현되어 3단계인 學 또는 修敎(Learning)와 구별되고 있다.¹⁷⁾

本書에서도 역시 童蒙期の 교육을 敎習으로 表現하고 있다. “사람이 착하게 되기는 몹시 어렵고 악하게 되기는 오히려 쉬우므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경계하는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일찍부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나쁜데 물들지 않도록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그 구체적인 規準을 37장으로 마련하여 놓았다.

그 내용은 우선 敎習의 目標을 선비됨에 두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東洋에서는 인격의 최고 경지를 聖人に 두지만 이에 도달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으로 中國에서는 君子, 일본에서는 武士, 그리고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선비로 일반화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선비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국어사전에는 “선비란 옛날에 학식은 있으나 벼슬하지 않는 사람, 학덕을 갖춘 사람의 옛스러운 일컬음, 어질고 순한 사람을 비유한 말”로 기록되어 있다.¹⁸⁾ 또 孔子는 “자신이 행하는 일에 열치가 있어야 하며…… 바탕이 곧으며 義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표현했고,¹⁹⁾ 「東洋思想事典」에 의하면 선비에 해당하는 “士”字는 十과 一을 합한 會意文字로 數는 一에서 시작하여 十에서 끝나기 때문에 書計의 事務를 보는 者를 士라 하고, 十은 博이오 一은 約이니 博文約禮를 배우는 者를 士라고 하며, 十의 衆人 가운데 一의 修養者를 士라고도 하나, 그중 가장 적당한 뜻은 修養者라고 보고 있다.²⁰⁾

그 외에 崔鳳永은 선비를 學과 士를 합한 것으로 學者와 官人을 겸한 상태라 定義하고, 따라서 自身을 위주로 한 修己와 他人을 위주로 한 治人이 겸비될 때 선비의 참모습이 드러난다고 했다.²¹⁾

本書에서도 “비록 가난하고 천하여 문지기가 되고, 고용살이를 하고, 농사·의원·장사·공장을 직업으로 삼더라도 몸을 닦고 스스로 삼가는 선비가 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쓴 것으로 보아 선비란 學德兼備人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禮節과 義理를 잃지 않으며 행동을 통해 세상에 恩澤을 주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회의 이상적인 인간상이 선비라면 그것에

16) 李珥, 栗谷集 II, 聖學輯要(三), 민족문화추진회, 1977, p. 141.

17) 崔鳳永, 朝鮮時代 선비精神研究—家廟·宗廟·文廟를 中心으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1, p. 10.

18) 이승녕(책임감수),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70, p. 449.

19) 金敎斌, 한국의 이상적 인간형, 한배움. 靑年儒道會, 통권 제 4호, 1987, p. 27.

20) 柳正基, 東洋思想事典, 서울: 大韓公報社, 1975, p. 178.

21) 崔鳳永, 前揭論文, 1981, p. 21.

도달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였을까?

이는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교재인 「小學」이나 「海東續小學」을 통하여 볼 때 人間關係를 담는 明倫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²²⁾

本書에서도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이 행할 올바른 도리 곧 인륜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역시 우리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가훈이었던 「擊蒙要訣」과 中國 儒家의 대표적 가훈이었던 「袁氏世範」등에도 지적되어 있다. 즉, 효도와 공경, 충성과 신의, 예절과 의리 등 인간관계에 필요한 덕목을 알고 실행하도록 어릴때부터 가르치고 있다.

敎習方法으로는 글을 가르치는데는 부질없이 많이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다만 정독하여 완전하게 알도록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다. 또한 “그 자질과 성품을 헤아려서 능히 200자를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만 100자만 가르쳐 주어 항상 정신과 역량에 여유를 가지게 함으로써 공부에 열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권하였다. 이러한 교습방법은 이미 「禮記」의 4敎授法을 통하여 전통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졌으므로²³⁾ 宋時烈的 戒女書 등 다른 교훈서에도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방자하여 교습을 망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童蒙이 비록 민첩하고 뛰어나서 재주와 지혜가 있더라도 어른은 지나치게 칭찬하여 교만한 기운을 길러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의시키고 있다. 段容思·陳謂山 등과 같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敎習을 잘한 예와, 반대로 몹시 경솔하여 집안 어른들을 거정시킨 李尙毅(선조때 학자·호는 소룡)가 작은 방울을 차고 스스로 경계하여 마침내 크게 너그럽고, 신중하게 된 예도 지적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자녀교육을 포기하지 말도록 권하고 있다. 또 부모 없는 자녀가 잘못되기 쉬운 것은 모범의 대상 즉 동일시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2) 李樹健, “李朝時代〈小學〉敎育에 대하여” 嶺南大學校 論文集 第二輯, 1968, p. 254.

23) 大學之法禁於未發之謂豫當其可之謂時, 不陵節而施之謂孫相觀而善之謂摩, 此四者敎之所由興也(禮記·學記)

24) 金凡父 校閱, 論語, 서울: 玄岩社, 1965, p. 205.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 論語: 友愛)

방법을 모색하도록 권하기도 하였다.

敎習태도로 “어른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는 두 손을 모으고 바로 앉아서 삼가 듣고 자세히 물어야 하며”, “시를 읊을 때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시킴으로써 맑고 명랑하여 소리와 음이 고르도록 하고”, “예절을 익힐 때는 마음을 맑고 엄숙하게 하여 실수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 “童蒙에게 벌을 주는 것은 어른에게도 피로운 일이므로 가르침을 정성껏 지켜 꾸지람과 종아리를 맞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이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어 벌을 받으면 그 까닭을 생각하고 조심하여 두 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하였다. 또 돌아 앉아서 공부한 경서나 시귀를 외울 때 가는 글씨로 베껴서 볼 때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산대를 속이는 것은 가장 나쁜 버릇이므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의시키는 동시에, 가르침을 받을 때 마음을 조급하고 산란하게 가져 스승의 가르치는 뜻을 듣기 싫어하고, 어려운 점을 묻는 일도 없이 가르치자마자 책을 덮거나 어른보다 앞서 읽는 버릇은 훌륭한 인제가 못 될 징조이니 깊이 경계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몽손·조심·열중·정직 등을 受講態度로 들고 있다. 또 童蒙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과 인격이 갖추어진 선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문과 재주 뿐 아니라 덕과 위엄도 고루 갖춘 스승을 선택할 수 있는 신중함도 요구했다.

“父兄은 어릴때부터 子弟의 자질을 잘 살펴 과거나 학문쪽을 택하도록 하고, 특히 교활한 자에게는 그 간사함이 넓혀지면 반드시 도둑이 될 것이므로 글을 가르쳐서는 안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는 그 사나움을 기르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게 될 것이므로 무예를 가르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점은 現今에도 재음미되어야 할 현명한 處事로 생각된다.

敎材로는 권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의 두 종류를 들고 있는데, 우선 소설은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미치 그 중에서 훌륭한 점을 얻어 가지기전에 먼저 소홀함과 교만한함을 익히게 되기 때문이며, 정신이 바야흐로 왕성한 때에 먼저 난잡한 것이 머릿속에 들어감”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 외에도 음란하고 멧멋지 못한 책은 접하지 못하도록 하였

다. 한편 한자 학습서인 최세진의 「訓蒙字會」를 바탕으로 하여, 율곡의 「擊蒙要訣」·「聖學輯要」와 左尹 俞直基가 편찬한 「海東嘉言善行」 및 「近思錄」 등으로 교양을 쌓고 「爾雅」·「急就章」·「紺珠」 등의 中國책을 권하여 群經과 諸史에 막히는 것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책을 읽는 방법으로는 정독함은 물론, 배움은 부분이 없이 통독할 것이며, 독서하는 시간과回数도 일정하게 하여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막히거나 너무 빨리 읽는 사람은 모두 그 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은화하고 상세하고 원만하고 분명하게 읽을 것”을 강조했으며, 白鹿洞 規範과 선조때 학자 趙重峰의 生活를 귀감으로 들어 면학을 권하기도 했다.

「論語」 社交편에 “君子는 學問으로 벗과 사귀며, 그 벗 있음으로써 仁德을 닦느니라”²⁴⁾로 표현된 바와 같이 敎習은 스승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交友關係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으므로 이를 마지막으로 언급하였다. “만약 불량하고 교활한 아이와 어울리면 먼저 집의 子弟를 다스리고, 상대아이의 부형에게 알려 그를 중아리치게 하고 다른날 또 혹시 놀러 오면 반드시 거절하여 쫓아버릴 것”을 명한 것으로 보아 子弟가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 몸을 잃고 집을 망칠까 어릴 때부터 주의시켰음을 알 수 있다.

3. 敬長(어른을 공경함)

여기서는 부모 및 年長者에 대한 童蒙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그 내용은 禮記 王藻의 “尊者를 뵈는 때는 敬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손하고 방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敬長>은 모두 23章으로 다른 章에 비해서는 짧은 편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우선 “어린이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 잘못을 저질러도 오랫동안 고쳐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된다.”고 지적하여 맹목적인 사랑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은 「袁氏世範」 治家 및 「顏氏家訓」 敎子 부분에 “慈父에는 悻子가 많다.”는 등의 경계의 말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櫟菴家訓도 자녀를 잘 가르

치는 것은 그 가정을 잘 전승하는 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랑에 빠져 어려서는 교만하고 게으르며, 자라서는 흉악하고 사나운 버릇을 더하게 된다.”고 했다. 여기서 ‘엄격함’이란 사나운 말이나 힘으로 자유를 구속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어릴 때부터 孝悌恭順의 예절을 가르치고, 법도에 알맞는 행동을 받아들이게 하며, 조금도 방종하거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해서 좋은 습관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²⁵⁾

다음으로 童蒙이 스승과 어른을 일컬을 때 반드시 先生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름이나 字를 함부로 불러서는 안되고, 비록 同學일지라도 먼저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다소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어른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어른의 衣冠으로 장난하지 말고, 어른이 앉고 눕는 자리에 앉거나 눕지 말며, 어른 앞에서 머리·입·코·귀속의 불결한 것을 노출시키지 말며, 어른이 식사하는 것을 보고 침을 흘리면서 바라보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담배·의복·필묵에 대한 시중 및 신체적인 시중을 공손히 할 것을 밝혔다. 그리고 어린이가 어른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웃고 말함이 너무 방자하면 祥스럽지 못하니 겸손하고 신중하게 공경하여 듣고, 삼가해서 대답하며, 대화의 내용이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으면 물러나오도록 가르치고 있다.

「小學」의 “從長者而上丘陵 則必鄉長者所視”와 같이 어른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 경치를 구경하며 놀고 즐길 때는 반드시 그 곁에 모시고 있어서, 어른으로 하여금 부르느라고 수고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어른이 나가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일어 서고, 어른을 모시고 식사할 때는 먼저 일어나지 않으며, 어른보다 늦게 자고 먼저 일어날 것과 날마다 비를 들어 닦고 쓸며, 침구를 잘 정리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또 손님을 보면 반드시 절을 하고 어른을 만나지 못할 때는 어디서 무슨 일로 왔는지를 물었다가 어른이 돌아오면 삼가 보고하고 노

25) 金鍾權 編著, 名家의 家訓, 서울:家庭文庫社, 1984, p.68.

인인 경우에는 부족하여 마루에서 오르내리도록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敬長의 내용들은 모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땅히 요구되는 생활예절이나 「士小節」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모든 章을 통하여 나타나는 敬思想이다. 그러면 '敬'이란 무엇인가에 儒敎의 傳統社會의 禮節에서 그토록 강조되었을까?

이를 위하여 먼저 敬의 근원이 되는 禮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禮의 원시적 의미는 「禮」字 自體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즉 神(示)에게 祭物(幽)을 床(豆) 위에 받쳐 둔 狀態를 象形한 글자가 곧 禮字이다. 따라서 禮는 古代 原始人의 禁忌 觀念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것은 神聖視된 존재 또는 禁忌의 대상과 접촉·관계하는 종교적 의식이다. 그러나 人智의 발달과 더불어 신비의 영역이 축소되고, 따라서 신성시되어 오던 의례는 점차 그 神聖性을 잃어 日常生活 儀禮로 凡俗化되어 갔다. 그리하여 原始的禮는 神聖性을 그대로 유지한 神聖儀禮와 凡俗化된 世俗儀禮로 分化되었다. 그리고 이 세속의례는 다시 두 方面으로 그 效用의 성격이 나누어졌다. 하나는 身分, 班爵, 職制 등을 규제하는 封建社會의 組織規範으로, 다른 하나는 灑掃應待, 進退의 小節에서부터 冠婚喪祭 등의 日常倫理 規範으로 변화하였다.²⁶⁾ 따라서 오늘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禮節은 日常倫理 規範인 생활예절이며, 본 「士小節」에서도 바로 이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 일상생활의 윤리규범인 禮와 敬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儀禮」와 「周禮」를 합쳐 概括하고 거기에 대한 哲學的 說明을 試圖한 禮의 根本典籍으로 「禮記」가 있다. 이에 의하면 “禮를 행함에는 敬이 주가 되고, ……敬을 간직하면 怠慢함이 없으며, 마음에 敬이 있으면 그 外樣이 의젓하다”고 하여 敬이 禮成立의 精神의 根據임을 밝히고 있다. 또 人間의 極度로 緊張되고 純化된 精神狀態로 표현되는 敬은 “恭이 容貌을 말하는데 비하여 心意를 말하며, 敬으로써 속(內)을 바르게 하고, 義으로써 밖(外)을 모나게 한다”는 표현과 같이 禮를 뒷받침하는 精

神의 基底라 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지식교육보다 도덕교육에 치중했던 朝鮮 時代에는 일상생활의 諸般事를 공경스러운 마음과 태도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예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童規」를 비롯한 「士小節」 전반에서도 “敬”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敬思想을 중시하는 이러한 측면은 또 유교적 학문인 性理學이 “敬”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의 性格의 統整과 心理的 安定을 찾고 나아가 인격적 완성을 강조했기 때문인 것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고급의 유교 경전은 물론 朝鮮時代의 범국민적인 교재였던 「小學」에도 73章에 걸쳐 ‘敬’이 강조되어 있으며, 退溪와 栗谷의 思想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말할 때도 모름지기 敬해야 할 것이고, 움직일 때도 모름지기 敬해야 할 것이며, 앉아 있을 때도 모름지기 敬해야 할 것이니 잠간이라도 이 敬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든지 “공부를 함에는…敬으로써 主宰를 세워야 하느니라.”²⁸⁾ 등 퇴계집의 내용이나 “마음을 오로지 하나로 하는 것(主一)을 공경이라 하고, 잡념을 가지지 않는 것(無適)을 일(一)이라 한다. ……일이 없을 때는 공경(敬)이 마음 가운데 있고, 일이 있을 때는 공경이 일 위에 있어서 일이 있는 없든 나는 공경을 일찌기 끊은 적이 없다. ……공경은 항상 惺惺(마음의 지혜롭고 밝은 모양)하는 법이다. ……공경은 사람된 도리를 붙들어 주고 받들어 준다.”²⁹⁾와 같은 栗谷集의 내용이 그 예이다. 이러한 사상은 誠·敬·信의 3理念을 표방하는 近代의 東學思想에까지 연결되고 있다.³⁰⁾ 따라서 어린시절부터 ‘敬’을 주입시킴으로써 유교 윤리 가운데 근간이 되는 人間關係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畏敬의 心理를 통하여 不安과 雜念을 제거함으로써 학습효과도 상승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27) 李完裁, 前揭論文, 1983, p.46.

28) 李 滉, 退溪集 II, 言行錄(一), 민족문화추진회, 1977, p.234~238.

29) 李 珥, 栗谷集 II, 聖學輯要(三), 민족문화추진회, 1977, p.141~142.

30) 徐久慶, 家訓을 통한 韓國倫理觀考察, 韓國外國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20.

26) 李完裁, 前揭論文, 1983, pp.38~40.

4. 事物(이런 일 저런 일)

〈事物〉에는 글자 그대로 士大夫家の 어린 子弟들이 일상생활에서 행해야 할 바와 주의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앞의 動止·教習·敬長의 각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편에서는 序頭格인 總論이 앞에 나오지 않고 처음부터 각 장으로 나열하고 있는 바, 좀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子弟가 어릴 때는 六甲·九九法·世系·國號 등 여러가지 名數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자라서는 더욱 거칠고 소루하여 분별력이 없고 모자라는 사람이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과거의 어린이 교육은 우선 사물의 이름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朝鮮時代 童蒙의 文學教材로 茶山の「兒學編」과「類合」 및 柳希春의「新增類合」 등이 天文·地理·動植物·各種器具 같은 생활에 직결되는 명칭과 心術·動止 등을 서술했으며, 중국에서 편찬되어 數世紀 동안 우리나라 童蒙初學의 第一入門書 구실을 했던 「千字文」도 이와 유사하다.³¹⁾

事物의 두 번째 章은 역시 앞의 教習에 이어 經典 공부의 중요성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는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子女의 교육을 바로잡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이나, 당시에는 교육기관이 발달하지 못해서 교육이 주로 가정의 기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훈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문자를 비롯한 기초교양을 익힌 후에는 儒教經典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만약 이를 하지 않으면 子弟가 “안방의 자질구레한 일이나 익히고, 동네의 몹시 더러운 말이나 익히며,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하여 출세하고, 여자들과 놀아나는 등 自暴自棄에 이른다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子弟로 하여금 아직 이와 같은 나쁜 습관이 발생하지 않았을 幼少時에 옛 성현의 경전을 가르쳐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豫法³²⁾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經典 공부의 목적이 과거와 벼슬이 아니고 仁·義·禮·智·信 등의 資質을 갖춘 君子의 人間됨 즉 인격수양에 두고 있어 오늘날의 출세·치부같은 地位追求의인 교육에 비해 훨씬 더 價値實現的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퇴계·율곡 등에 의해서도 피력되었지만 雅亭의 주장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격수양을 위하여 경전의 내용을 배우게 함은 물론 서책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습관도 어려서부터 길러주도록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놀이를 억제하였다. 우선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장기·바둑·쌍륙·골패·투전·돈치기 등의 단순한 놀이는 물론, 윗놀이·從政圖놀이 등 知的 能力을 기르는 것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놀이는 모두 “정신을 소모하고, 의지와 기개를 어지럽히고, 공부를 그만두게 하고, 바른 품행과 절도가 없어지고, 경쟁과 간사함을 조장하며, 죄를 지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까지 이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도 활과 화약놀이는 위험하고, 벌레·새·풀·나무 등을 죽이거나 상하게 하는 것은 仁에 벗어나며, 함부로 얼음을 썰거나 눈을 뭉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연날리기는 어린이를 흥분시키고 용모를 손상시키며, 손님의 노새나 나귀를 몰래 타고 달리는 것은 방자하다고 생각하는 등 모두 금지만 시켰을 뿐 권장하는 놀이는 전혀 없어 운동발달은 물론 어린이다운 욕구나 정서의 표출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음을 지적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놀이를 이렇게 금지하는 데에는 정서 문제를 思慮로 해결하려는 性理學의 특성을 幼少時부터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즉 환경변화를 통하여 적극적인 적응을 시도하였던 서구사회와는 달리 自制나 本能抑制를 통해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해가도록 하는 性理學의 성격과, 慾求 및 情緒의 統制를 통해서 成熟된 人格으로 발전시키려는 훈련을 일찍부터 서두르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다음 “어린이는 욕심이 많아 남의 의복·그릇·물건을 보고 탐낼 수 있으므로 주의시키고”,

31) 金世漢, 朝鮮朝初學教材研究, 漢文學研究, 啓明 漢文學研究會, 1982, p.8~18.

32) 大學之法 禁於未發之謂豫 當其可之謂時 不陵

節而施之謂孫 相觀而善之摩 此此四者教之所由興也(禮記:學記)

“형제간은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고루 가져야 하며”, “어버이를 섬기는 사람은 약을 달이고 차를 끓이는데 그 불과 불의 정도를 잘 알아야 하며, ……”와 같이 淸貧의 훈련인 禁慾, 家族和睦의 필수요건인 友愛 등을 前편에 이어 한번 더 깨우치고 있다. 특히 전통사회에서 인간관계 규범의 기본 및 仁의 근본으로 보았던 孝³³⁾ 즉 事親의 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건강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를테면 “어린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름다운 행실이 아닌바, 골수에 스며 혈기를 마르게 하고, 담배진과 재는 책을 더럽히고 의복을 태우며, 손님을 대하고 있을 때는 오만하고 외람되므로” 금연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밤참을 많이 먹지 말며 먹은 뒤에 곧 눕지 말라”는 음식조식 및 “먼지를 소제하는 것은 때에 구애하지 말고”, “벼루는 5일에 한번씩 씻고”, “이불과 요와 자리는 3일에 한번씩 털어라”는 등 청결도 당부하였다.

또 “보리 까끄라기를 입에 물지 말고, 꽃술을 냄새 맡지 말며, 불장난을 하지 말고, 불에 대고 기침을 하지 말며, 등잔불을 자르고 벼루물을 부을 때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등 제반 행동에서 조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어릴 때의 행위에 대한 조심을 통하여 成人時의 마음의 조심까지도 유도하려고 하였다. 이른바 조심은 전통사회에서 男女 모두 지켜야 할 心術과 動止의 기본 원칙으로서 本書 외에도 여러 가정의 家訓에 많이 나타나 있다.³⁴⁾ 그것은 역시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舟書』³⁵⁾ 등 儒敎의 기본 典籍의 영향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雅亭은 일에 대해서 책을 매는 것을 예로 들어 반드시 “정하고, 상세하고, 바르고, 가지런하게” 하도록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陶淵明이 아들과 門人들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고,

子路가 쌀을 저 부모를 봉양하고, 孔子가 鈞戈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勤勞를 존중하며 비록 집안이 富貴해도 여가에 수고로운 일을 하면 뒷날에 도움이 클 것이라고 훈계하였다.

Ⅲ. 要約 및 結言

人間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는 社會的 環境은 家庭이며 처음으로 맺는 人間關係 역시 家庭內의 構成員과 더불어 이루는 家族關係이다. 이러한 가족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농도가 깊고 전면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지므로 후에 겪게 될 對人關係의 기본이 되며, 幼少時에 가정생활에서 습득한 태도와 경험은 成長後의 태도와 경험의 母體가 된다.

個人的 삶에 이렇게 중요한 機能을 수행하는 家庭은 그 構成員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家訓이라 불리는 일정한 生活指針 또는 敎訓을 요구하게 되며, 따라서 家訓은 한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그 ‘집’에 속한 구성원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인격이 형성되도록 자극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의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家庭의 機能이 축소되어 子女의 敎育을 社會와 學校도 분담하는 現代에는 가훈이 몇개의 단어로, 또는 몇줄의 문장으로 表現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敎育기관이 발달하지 못하여 가정이 그 기능을 거의 전담했던 傳統社會에서는 가훈의 意義와 機能이 더욱 중요했다. 그래서 그 名稱도 家訓의 예 家戒, 家規, 家憲, 訓子, 箴, 銘, …… 등으로 다양하였으며,³⁵⁾ 그 내용에 있어서도 睦親, 處世, 治家, 敎育에 해당되는 것 뿐 아니라 當時의 社會에서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교양까지도 포함하여 數卷의 冊으로 전해지는 예도 許多하다.³⁶⁾

33) 金瓊東, 敎科書分析에 의한 韓國社會의 儒敎 價值觀研究, 이삼백 박사 회갑기념 논총, pp. 349~354.

34) 金鍾權 編著, 名家의 家訓, 서울: 家庭文庫社, 1984.

35) 金星元 譯, 小學, 서울: 明文堂, 1986, p. 227. 丹書日敬勝忿者 吉怠 勝敬者 滅義勝忿者 從忿 勝義者(小學, p. 227)

35) 林采植, 韓國家訓을 通한 家庭敎育에 關한 研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1. p. 2.

36) 拙稿, 中國宋代의 家訓考察, 社會科學研究, 第六輯第二卷, 嶺南大學校 附設 社會科學研究所, 1986, p. 237.

本稿에서 考察한 「士小節」도 역시 8卷이나 되도록 상세하게 엮은 修身書 家訓類로 朝鮮後期の 實學者이며 한문학 四大家로 文名을 떨친 雅享 李德懋가 英祖 51년(1775)에 저술한 것이다.

著者は 사소한 예절을 중시하여 잘 실천함으로써 큰 예의를 능히 실행할 수 있는 도덕적 인격자가 된다고 믿고 言行·衣食·教育·人間關係·祭祀 등 日常生活 全般에서 생각하고 行動하는데 갖추어야 할 儒人的 표준과, 어린이에게 해당되는 마음가짐·행동거지·공부·웃어른 섬기기 및 기타 日常事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을 儒家的 入場에서 실생활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 어릴 때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습관들이도록 주의시키고 있다.

本稿는 이 가운데서 뒷부분 즉 어린이에 대한 부분만 고찰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선량한 성품과 신체적 보존에 목적을 두고, 일상생활을 통해 이를 습관화하도록 시도된 표준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童蒙의 마음가짐은 恭敬·操心·正直·忍耐·寬容·儉素 등을 지니도록 요구하였고 또 이러한 德이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訓育하였다.

2. 童蒙의 몸가짐은 聖賢의 행동적 특성인 九容을 갖추도록 훈육했다. 九容은 건강하고 안정된 심리상태에서 발견될 수 있는 行動特性群으로, 이러한 신체적 훈련을 통하여 聖賢의 人格의 特性에 이르도록 訓育하였다.

3. 行動은 조심해서 신중하고 침착하게 하도록 訓育했다. 操心은 傳統社會에서 男女老少 전반에 요구되는 心術과 動止의 기본원칙이었으므로 어릴 때부터 크게 강조하였다.

4. 敎習의 目標은 科擧보다 人間됨 즉 선비됨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서 人間關係의 질서라 할 수 있는 明倫을 중점적으로 訓育했다.

5. 敎習方法은 童蒙의 능력에 여유를 두고 精讀 및 通讀하도록 요구하였으며 恭遜·操心·熱中·正直 등의 受動態度를 지니도록 訓育했다.

6. 敎習內容은 六甲, 九九法, 世系, 國號 등 여러가지 名數를 통하여 분별력을 기르고 「擊蒙要訣」·「聖學輯要」·「近思錄」 등으로 교양을 쌓은 후에 經典을 읽도록 하였다. 그러나 능력보다 天稟을

중시했기 때문에 子弟의 氣質을 살핀 후에 글을 가르쳤으며 그 目的도 科擧보다는 人格修養에 두었다.

7. 웃어른에 대한 태도는 敦厚·慎重·恭敬·謹慎을 요구하고 驕慢과 放恣를 警戒하도록 訓育했다. 특히 恭敬은 禮의 근거인 동시에 儒人的 情緒的 統制내지 安定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모든 行爲에 요구되는 기본 에티켓이었다고 할 수 있다.

8. 일반적으로 肉體와 精神의 자연스러운 表出보다 禁慾 및 정서적 통제를 통한 自省과 德行을 중심으로 한 道德的인 면이 주된 訓育內容으로 보인다. 그리고 訓育方法에 있어서는 環境과 自我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 및 시도는 缺如되었으나 幼少時의 可塑性을 인정하여 마음가짐과 몸가짐에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각별히 노력한 점과, 童蒙期의 知的 發達 段階에 맞추어 권장 및 금지 사항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標準을 제시한 점은 매우 合理的으로 생각된다.

參 考 文 獻

1. 權五惇 譯, 禮記, 서울: 弘新文化社, 1982.
2. 金瓊東, 敎科書分析에 의한 韓國社會의 儒敎 價値觀研究, 이상백 박사 퇴직기념 논총.
3. 金敎斌, 한국의 이상적 인간형, 한배움 青年 儒道會, 통권 제 4 호, 1987.
4. 金凡父 校閱, 論語, 서울: 玄岩社, 1965.
5. 金星元 譯, 小學, 서울: 明文堂, 1986.
6. 金世漢, 朝鮮朝 初學敎材研究, 漢文學研究 第一輯, 啓明漢文學研究會, 1982.
7. 金鍾權 編著, 名家的 家訓, 서울: 家庭文庫社, 1984.
8. 柳正基, 東洋思想事典, 서울: 大韓公報社, 1975.
9. 柳岸津, 韓國의 傳統育兒方式,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6.
10. 柳點淑, 「禮己」를 통해서 본 周代의 兒童敎育 觀 考察, 대한가정학회지 제 22권 3호, 1984.
11. 朴京子, 韓國近代 家庭敎育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논문집 6(12).

12. 朴文鉉, 朴在馨의 「海東續小學」研究, 碩士學位論文, 1979.
13. 師朱堂 李氏, 胎教新記, 筆寫本.
14. 徐久慶, 家訓을 통한 韓國倫理觀 考察, 韓國外國語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5. 孫仁銖, 집안의 家訓과 學校의 校訓, 새교육 11月號, 1978.
16. 宋時烈, 戒女書, 正民社, 1980.
17. 顏之推 繁, 玉制器集會, 顏氏家訓, 臺北, 明文書局.
18. 袁 采, 袁氏世範, 臺北, 學生書局印行.
19. 李德懋 著, 金鍾權 譯, 士小節, 서울: 明文堂, 1985.
20. 李樹健, 李朝時代 〈小學〉教育에 대하여, 嶺南大學校 論文集 第二輯, 1968.
21. 李 珥, 栗谷集 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2. 李完裁, 禮樂論, 東洋文化 第二十三輯, 大邱: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3.
23. 李 滉, 退溪集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24. 任能彬, 性理學의 適應心理學의 接近,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1983.
25. 丁淳睦, 退溪教學方法論의 哲學, 人文研究 第七輯 第四號, 嶺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85.
26. 崔鳳永, 朝鮮時代 선비 精神研究 一家廟, 宗廟, 文廟를 중심으로,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碩士學位 請求論文, 1981.
27. 韓基彥, 東洋思想과 教育, 서울: 法文社, 1978.